“달리는 법당서 봉사와 전법을”

부산 ‘법륜회’ 22주년 기념법회 봉행

독거어르신위한 보양죽 후원
700만원 후원금 복지관 전달
22년 동안 나눔과 포교 앞장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법륜회가 3월 18일 부산 금곡동 진흥사 법당에서 창립 22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달리는 법당이라 불리며 포교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부산개인택시 법륜회(이하 법륜회)가 창립 22주년을 맞았다.

부산 법륜회(회장 황기훈)는 3월 18일 부산 금곡동 진흥사 법당에서 창립 22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기념법회에는 진흥사 주지 정법 스님을 비롯해 황기훈 회장, 변성완 前 부산시장 권한대행, 김호덕 부산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정분남 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장, 정달성 금곡동 동장 등 200여 대중이 동참했다.

이날 법회서는 불자 택시기사들이 회색 법복을 입고 단정히 앉아 부처님의 가피를 기도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과 감염 위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 빨리 코로나가 사라지길 기원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법륜회 불자들은 택시 안에 있는 복전함과 개인 동참금을 모아 독거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영양죽 지원비 700만원을 금곡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했다. 지원금을 전달받은 금곡종합사회복지관은 이번 달부터 11월까지 지역 내 어르신들께 영양죽을 만들어 매달 전달할 예정이다.

법회는 삼귀의례 및 반야심경 등 예불을 시작으로 연혁보고, 내빈 소개로 이어졌다. 법륜회는 사랑의 영양죽 전달식에 이어 감사패 및 공로패 수여로 활동에 모범이 된 불자기사들을 격려했다.

공로패 및 감사장 수여에서는 부산불교연합회장상에 손병조, 임정택,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장상에 송용우, 조호길, 사단법인 부산불교 지도자포럼상에 김동억, 김상백, 불교여성개발원 부산지원장상에 김명룡 불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감사장은 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장상 양기석, 양동일 불자가 받았으며 부산개인택시조합 이사장상은 우태구, 최병식 불자, 부산개인택시조합 새마을금고 이사장상은 이건석 불자가 받았다. 이어진 격려사 및 축사에서는 포교에 앞장서며 꾸준한 봉사 활동을 이어 온 법륜회의 노력을 치하하는 각계 발언이 이어졌다.

진흥사 주지 정법 스님은 “창립 22주년을 맞은 법륜회는 이제 왕성한 청년의 시기가 되었다”며 “신심을 증장시키고 각 개인의 차량으로 이곳저곳을 누비며 많은 이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전하는 전법도량, 봉사와 선행을 실천하는 포교사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기훈 법륜회 회장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음을 느낀다”며 “오늘의 나눔은 우리 모두를 위한 또 다른 회향으로 공덕이 될 것이다. 동참해주신 모든 회원들에게 감사인사 올린다”고 말했다.

김호덕 부산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그간 코로나로 인해 여러분을 뵙지 못했는데 꿋꿋하게 버텨주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22주년을 맞은 여러분들의 봉사활동을 보았다. 진심으로 축하하며 저도 난국을 타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분남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단장은 “여러분이 진심으로 거리의 포교사이며 달리는 법당이다. 지역단장으로서 여러분 모두가 포교사가 되었으면 하고 바랄 정도로 든든하고 욕심마저 생길 정도”라고 축하했다.

한편, 법륜회는 1999년 2월 11일 부산 연산동에 위치한 정수사에서 창립됐다. 법륜회는 창립 당시 20명을 바탕으로 현재 130여 회원들과 부녀회 봉사신행단체가 함께하고 있다. 매일 아침이면 관세음보살에게 자신과 손님들의 안전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또 복전함을 택시 안에 두고 십시일반 손님들이 후원한 금액을 모아 자비행에 앞장서고 있다. 법륜회는 이밖에 불교봉사 단체로 장학사업과 불우이웃돕기 등 봉사활동을 20년 동안 이어왔다. 소년, 소녀 가장 250여 명에게 장학금 1억 6000만원을 지원했으며 독거노인 가정 생필품 및 가전제품 등 나눔을 위해 1억 2000여 만원을 지원했다. 그 외 정기적인 신행활동과 부처님오신날 제등행렬 교통봉사, 마산 결핵 요양병원 봉사, 양로원 및 장애아동 후원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제3회 부산불교대상’ 후보자 공모

4월 1일부터 23일까지

부산불교계가 제3회 부산불교대상 후보자를 공모한다. 부산불교대상은 부산 불교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불자 및 신행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됐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경선)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회장 박수관)는 불자 및 불교 단체를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23일까지 ‘제3회 부산불교대상’ 후보자를 공모한다.

2019년부터 시상하고 있는 이 상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범적으로 실천함으로 지역과 사회에 희망과 모범이 되는 불자를 발굴해 불교계의 귀감으로 삼고 있다. 아울러 불교중흥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추천 대상은 부처님 교리 실천, 불교발전, 사회봉사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부산의 불자 또는 불교 관련 단체이며, 후보자는 2인 또는 2개 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추천권은 부산지역 각 사찰 대표와 부산지역 불교 관련 기관 및 단체장에 있으며, 접수는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홈페이지(www.bbf.or.kr)에서 제출 서류 양식을 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방문접수 하면 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천태종 광명사, 법화산림대법회 입재

3월21일부터 10월 17일까지
매월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묘법연화경〉주제로 진행돼


광명사는 3월 21일 지관전에서 ‘법화산림법회’ 입재법회를 봉행했다.

부산 천태종 광명사가 천태종 소의경전인 〈묘법연화경〉을 주제로 대중에게 해설하는 ‘법화산림법회’를 진행한다. 광명사(주지 춘광)는 3월 21일 지관전에서 ‘법화산림법회’ 입재 법회를 봉행했다.

법화산림법회는 천태종 소의경전인 〈묘법연화경〉을 깊이 있게 해석하고 알아보는 시간으로 대중들의 신심을 고취하고 경전을 통한 바른 견해를 이끌기 위해 마련됐다.

법화산림법회는 입재일인 3월 21일부터 10월 17일까지 매월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오후 9시에 진행되며,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교재는 〈법화경문의 묘해〉이며 유튜브 ‘천태종부산광명사’에서 볼 수 있다. 강사는 금강대 불교학과 교수 광도 스님이 담당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돌봄공백 해소 ‘용호쑥쑥자람터’ 개소

3월 24일 용호복지관서 개소식


사회복지법인 문수복지재단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3월 24일 복지관 내에서 용호쑥쑥자람터 개소식을 진행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단축수업 등으로 아동의 돌봄이 절실한 문제가 되었다.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이 앞장섰다.

사회복지법인 문수복지재단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서은해)은 3월 24일 복지관 내에서 용호쑥쑥자람터 개소식을 진행했다.

용호쑥쑥자람터는 지역 내 초등학생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지정받아 운영하는 초등학교 돌봄교실이다.

개소식에는 사회복지법인 문수복지재단 대표이사 지원 스님, 서은해 관장, 부산시교육청 김석준 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진불선원은 3월 20일 진불선원 5층 대적광전에서 ‘선불교대학 제12기 입학식’을 봉행했다.

진불선원 선불교대학 12기 입학식

창원 진불선원 선불교대학이 입학식을 봉행하고 수행과 교학을 통한 성장과 정진을 당부했다.

진불선원(주지 무아)은 3월 20일 진불선원 5층 대적광전에서 ‘선불교대학 제12기 입학식’을 봉행했다.

입학식에는 주지 무아 스님, 이철헌, 박성철 동국대 교수, 주선영 신도회장, 박종배 동문회장 등이 동참했다.

입학식은 △개식사△삼귀의례△한글반야심경△헌다공양△학장스님 축사 △격려사 △신도회 및 동문회소개 △환영사 △발원문 낭독 △니르바나 합창단 축가 △공지사항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주지 무아 스님은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힘든 시기이지만 인원을 제한하고 철저한 방역으로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좋은 인연으로 힘껏 정진해 이번 입학생 가운데 한 분의 낙오자 없이 행복한 정진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선영 신도회장은 “입학하신 모든 분들에게 축하인사를 드리며 대학에서 배운 공부를 사회에 접목시켜 바른 정견으로 보시와 자비를 행하는 전정한 불자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박종배 동문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으로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입학하신 12기생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앞으로 전법도량 진불선원과 동문회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